

■ 1년 넘게 공석, 광주상의 상근부회장 선임 어떻게

적임자 없어서? 의지 없어서?

광주상공회의소(이하 광주상의)의 살림과 대외 업무를 총괄하는 상근부회장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 금호아시아나그룹 위크아웃과 금호타이어 사대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1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3월17일 전임 문덕형 상근부회장이 퇴임한 뒤 아직까지 후임을 찾지 못해 상근부회장 자리가 1년 넘게 비어 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중앙에서도 통할 수 있는 인물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아직까지 적임자를 찾지 못해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근부회장은 의원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어 영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상의는 지난해 3월 의원총회 당시 광주시 퇴직공무원 출신인 A씨(3급)를 상근부회장으로 임명하려 했지만 A씨가 지방공무원 출신

직급싸고 시와 갈등·내부 반발 등에 후임 못찾아
금호사태 등 지역 현안 제목소리 못내 인선 시급

으로 직급이 낮다는 지적이 일면서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의원들 사이에서는 "1급 이상의 중앙 고위공무원 출신을 물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홍석 회장이 직접 나서 중량감 있는 인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인물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근부회장 인선이 잠기화되면서 '광주시와 갈등설', '내부 반발설' 등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광주상의 한 의원은 "광주시와 의견조율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광주시가 몇 차례 후보를 추천했지만 광주상의는 직급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상근부회장직을 광주시와 전남도

가 번갈아가며 추천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강하다.

다른 의원은 "광주상의가 광주시나 전남도 산하기관이 아닌 독립기관인데 시·도가 약속 나눠갖듯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내부 반발이 있다"고 말했다. 마땅한 인물도 없는데 내부 반발까지 얹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상근부회장 연임 제한을 만 70세로 완화해 인력풀을 넓혔는데도 인선이 늦어지는 것은 회장단의 의지 부족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상근부회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 위기, 건설업계 고사, 금호타이어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 상근부회장은

광주상의 정관에 따르면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처리하고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직도에는 회장과 사무국장(실무 총괄) 사이에 놓여있다. 회장이 명예직임을 감안하면 광주상의의 실무 총책임자로 살림과 대외 업무를 총괄하게 돼 있다. 임기는 3년이지만 통상 선출직인 회장과 임기를 함께하는 경우가 많다. 보수는 연봉제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7천만원~8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지난달 31일 광주시 관공구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회를 방문, 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추가 진출과 관련해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영세상권 초토화 더이상 안된다”

광주 SSM 추가 진출에 슈퍼조합 사업조정 신청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도 잇따라 반대 성명

대기업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광주지역 추가 진출에 대한 반발(광주일보 3월31일자 9면)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이하 슈퍼조합)은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을 냈고,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도 잇따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슈퍼조합은 오는 6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과 치평동에 330㎡ 규모의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개점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에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슈퍼조합은 '(주)삼성테스코 SSM 광주 입점 반대 기자회견문'을 통해

“외국 자본이 지분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테스코가 광주를 포함해 전국을 SSM 전진터로 만들고 있다”며 “정부와 시는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출을 규제하고 중소기업들의 상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광주시장과 구청장 예비후보들도 성명서를 통해 SSM을 비롯해 대형유통업체의 추가 진출을 규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장원섭 민주당광주시장 예비후보는 “SSM 입점허가제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광주시는 조례로 제정된 유통업상생발전회의를 통해 대형마트와 SSM 개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사업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도 “SSM의 무분별한 추가 진출은 헌법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에도 위반된다”며 “교통영향평가 조례를 더욱 강화하고 SSM 규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의 추가 진출이 검토되고 있는 북구와 남구지역 예비후보들은 대형 유통업체간의 과도한 경쟁이 지역 유통 경계를 흐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형근 민주당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북구 삼각동 대형마트를 비롯해 더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의 추가진출은 허용해서 안된다”고 밝혔으며, 김영집 민주당 남구청장 예비후보도 “규제대상 확대와 주변 자영업자의 동의를 얻는 ‘SSM 사전조정제도’ 등을 통해 지역상권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KT, 철도역사에 무료 무선랜망 구축

이르면 이달부터 철도역사에서 노트북 등을 이용해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KT는 한국철도공사와 1일부터 전국 KTX 7개 주요 역사와 승강장 스토리웨이 매점 주변에서 누구나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가 온 '룩앤소 존'을 구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와이파이존이 구축된 7개 역사는 서울·용산·천안아산·광명·대전·동대구·부산역 등이며 오는 4월까지 나머지 16개 KTX 역사와 56개 새마을호, 무궁화호 주요 역사에도 구축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은 광주역 나주·합평 등 6개 KTX역사와 순천·구례·곡성 등 5개 새마을호 역사에 설치된다. /강필상기자 kps@

“보너스 나온다더라”

만우절 듣고싶은 거짓말

직장인들은 회사의 특별보너스 지급 소식을 만우절 거짓말이라도 기분이 좋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스카우트는 최근 직장인 930명을 대

상으로 만우절에 회사로부터 들고 싶은 거짓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6%가 '특별보너스 지급 소식'을 꼽았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어 주4일 근무제 도입(16.1%), 출퇴근 시간 자유화(9.6%) 등이 있었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www.kjhr.com

본점 (062) 227-9940
순천점 (061) 752-9940
해운점 (061) 262-9200
홍성점 (062) 227-9970
익산점 (063) 851-2422

무안 ↔ 오사카 직항

LAND BANK

광주 MBC 문화방송

예약문의 : LAND BANK랜드뱅크/여행사